

제17542호 2판
2006년 9월 2일 토요일



<박미선>

개그맨들의 변신 드라마에서 뜬다

박미선·김효진 등 출연 '봄'...맛깔 연기로 인기

꾸준히 20%대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SBS 드라마 '사랑과 야망'은 국내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김수현 작가의 작품이다. 많은 탤런트들이 주인공은 물론이고 주변 인물들에게도 생생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걸로 유명한 그녀의 작품에 출연하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그녀 역시 조역 캐스팅에까지 관여할 정도로 간간하다.

'사랑과 야망'에서 길 데 안 길 데 가리지 않고 나서는 '과주대'의 개그우먼 이정실은 이 작품의 빛나는 조연이다. 이미 SBS '불탑주부' 등을 통해 드라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지만 '사랑과 야망'에서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런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개그맨들의 드라마 출연이 활발해지고 있다. 개그맨들은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재치가 뛰어난데다 무대에서 연기한 경험도 풍부해 드라마의 맛깔스런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유쾌하고, 코믹한 캐릭터가 비속비하하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조만간 '진지한' 배역을 따내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순종산부인과' 등을 통해 만만치 않은 연기력을 보였던 박미선은 SBS 수목드라마 '돌아와요 순애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혜진의 친구 역으로 출연하고 있는 박미선은 최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본 스톤의 '원초적 본능'을 패러디 해 화제가 됐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 친구 역은 그만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박미선

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에 출연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안선영은 요즘 코미디 프로보다는 드라마에서 더 각광받고 있다. '장미빛 인생' '미스터 타이' 등에서



<이정수와 김효진>

특별 뒤편은 조연 역할을 했던 그녀는 MBC 베스트 극장 '새끼곰의 미소'에 당당히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안선영은 고현정의 출연과 '내 이름은 김삼순' 작가의 결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MBC 수목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9월20일 방영)에 고현정의 친구이자 천정명의 누나 역으로 캐스팅됐다.

'원더풀 라이프'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던 김효진은 SBS 아침드라마 '맨발의 사랑'에서 주인공 전혜진의 친구 나분남 역을 맡아 역시 개그맨 출신인 '우적다집'의 이정수와 연상연하 커플을 연기하고 있다. 특히 이정수는 개그맨 생활을 완전히 접고 연기에만 매진하기 위해 서울 대학로 무대에서 '순정만화' 등 연극무대에 꾸준히 오르며 실력을 닦아온 노력파다.

남자 중에서는 임하룡의 변신이 눈에 띈다. 영화 '웰컴 투 동막골'로 청룡영화제 남우조연상까지 받은 임하룡은 최근 드라마에 진출했다. 그는 김옥빈·지현우 등 청춘스타들이 주연을 맡은 MBC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주인공 지현우의 철없는 아버지로 출연중이다.

그밖에 김준호는 MBC 일일드라마 '얼마나 좋길래'에, 정준하는 MBC 드라마 '발칙한 여자들'에 출연중이다. 또 연극 '아트' 등 대학로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진수 역시 얼마전 막을 내린 '위대한 유산'에서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강력한 형사로 출연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선영>

"비·류시원 등 한류스타 보러 한국으로"

일본팬 수천명 내달 몰려온다

10월 수천명의 일본 팬들이 비와 류시원, 신승훈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대거 입국한다.

10월15일 정규 4집을 아시아권 10여 개국에 동시 발매할 예정인 비는 10월13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예정)에서 아시아권 음악 관계자와 팬들을 초청한 가운데 대규모 쇼케이스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류시원은 10월16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2천석 규모의 돔아트홀에서 아시아권 팬미팅을 개최한다. 10월 10일 10집을 발표하는 신승훈도 10월14~15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10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겸한 단독 공연을 펼친다.

이들이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한

국 스타인 만큼 일본 원정단의 규모도 수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의 소속사인 R'S 컴퍼니는 "행사장 2천석 중 1천500석을 일본 팬들에게 할애한다. 나머지 500석에는 한국·중국·싱가포르·미국 하와이 등지 팬들과 한국 및 일본 취재진에게 배정할 예정"이라며 "팬들이 팬미팅 하루 전날 류시원의 레이스 경기 관람하는 스케줄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명의 일본 팬들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0월 행사장 대관이 어려워 추첨을 통해 1천500명 규모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신승훈의 소속사인 도로시뮤직도 "자녀 12월 3회 공



연 동안 매회 350명씩 일본 팬들이 원정 관람해 1천명을 넘어섰다"며 "이번 콘서트 때도 600~1천명의 팬들이 국내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행사들은 이 시기 일본발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한국 내 숙박 예약이 '동이 날 정도'라고 예기하고 있다.

일본 전문 국내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이 시기 도쿄발 한국행 비행기 좌석을 구하기 힘들어 일부 도쿄 지역 팬들은 나고야로 가서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티켓이 뚝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39	(팩스 222-8005)
정리부 2200-616	광고부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어문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건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7월 10일 공무원

40년 전통 최고의 명문
노명환·김주·홍사형 출장
현장형 특목고(100%)

부경철직

노명환 출장
노명환 출장
노명환 출장

중개사

노명환 출장
노명환 출장
노명환 출장

전남고시학원

전남대학교합동원
양우명 이사장
TEL: 062-222-5195

해운/미드 그린 투어

해운/미드 그린 투어

해운/미드 그린 투어	해운/미드 그린 투어	해운/미드 그린 투어
해운/미드 그린 투어	해운/미드 그린 투어	해운/미드 그린 투어

TEL: 062-222-5195 FAX: 062-222-5542

지붕·옥상슬라브 우리만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재

(주)태양주먹개발 TEL: 062-262-0606

식내정원

식내정원

인테리어

인테리어

TEL: 062-511-8280